【자료소개】

선화공주·지증왕비 사료읽기 관련 구술자료 소개

신 종 원*

『삼국유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삼국사기』의 일부 기사도 서사문학으로 보는 연구가 적지 않다. 어떤 사실을 기술/기록할 때는 당대의 언어로 글쓴이의 느낌이나, 평가(사실여부)가 들어가게 마련이다. 위의 한국고대사 기본 문헌도 설화냐 역사냐 라는 양분법으로 재단해서는 많은 진실을 놓칠 수 있다. 특히 이야기로 잘 꾸며진 사료의 경우 굳이 어느 시대의 누구라고 명시한 문구만 괄호 치면 그것 또한 정형화된 설화의 패턴에 따르고 있음을 종종 본다.

2009년 익산 미륵사서탑사리기가 나오자 서동요의 주인공 선화공주는 가공인물이라는 '폭탄선언'이 나왔고, 그 반론으로 명문의 사택적덕비 외에도 선화공주나 제3의 妃嬪을 상정하기도 하였다. 이후 선화공주라는 '보물찾기'는 2015년 익산 쌍릉 대왕묘에서 나온 치아를 분석하여 20~40대 여성임이 밝혀졌지만 대왕릉이 오히려 왕비릉이 되고 말아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2018년 대왕릉 2차발굴결과 나온 사람뼈는 50대의 신체 건장한 남성으로 판명되어 무덤 주인공은 무왕이라는 원래 인식으로 돌아갔다. 이리하여 선화공주의 불사공덕을 증명하는 유적으로는 쌍릉의 대왕묘보다 먼저 조성된 소왕묘와 미륵사의 중앙목탑·금당이 '할당'되었다. 무왕이 승하한(641) 이듬해에 돌아간 사택왕비는 사택씨 가문의 근거지인 사비에 묻혔을 것이라 하였다. '반전, 또 반전의 드라마'라고도 하고, 역사를 곡예하듯 풀어 넘긴다고도 말한다. 모두 엄연한 사적을 두고 고려시대의 선화공주 스토리텔링에 맞추다보니 유적·유물 해석에 혼선을 빚은 게 아닐까. 미륵사 동·서탑과 중앙탑의 연대라든가 쌍릉의 대·소 무덤 조성시기에 대한 고고학적 근거는 출토기와의 12간지 명문이나 나무널(木棺) 경첩/밑동쇠를 두고

*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나온 '조심스런' 추정으로서 이를 근거로 제2의 왕비를 상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사대부는 물론 왕릉에도 부인/왕비가 둘인 경우 세 사람의 봉분을 나란히 모시는(왕릉의 경우는 三連陵이라 하며 헌종과 효현왕후·효정왕후 세 무덤) 예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선화공주가 처음 실린 역사책은 『삼국유사』다. 물론 그 이전부터 전해오던 이름이고 이야기다. 그런데 '선화공주' 및 관련 설화는 『삼국유사』 이후 현대까지도 보이며 민요에서도 찾아진다. 이쯤 되면 무왕의 제2,3 왕비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실존 인물 선화공주'의 사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태도는 문제다. 비록 현대 것이지만 선화공주가 등장하는 구술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내 복에 산다'(효심 깊은 셋째 딸)[1] 설화가 옛 백제지역인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도 환기시킨다. 무왕 및 선화공주에 대한 최근의 저서로는 아래 두 권이 있다.

이병호, 2019, 『백제왕도 익산, 그 미완의 꿈 』, 책과함께
신종원, 2019, 「신라의 선화공주가 백제 미륵사를 지어주다」 『삼국유사 깊이 읽기』, 주류성

두 번째 자료는 신라 지증왕비를 찾게 된 설화로서 『삼국유사』에 실린 버전과 흡사하여 소개한다. 모두 신라·백제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영월군에서 나온 자료다.

Ⅰ. 『삼국유사』 기이 무왕조 관련 설화 및 민요

1. 선화공주—근현대 구전민요[2]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대선리 173-1 회선마을 제보자 이증수(49살) 자택,

1) 다음과 같은 노래 가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건너마을에 최진사댁에 딸이 셋있는데 / 그 중에서도 셋째따님이 제일 이쁘다던데"
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한국구비문학대계 5-13, 전라북도 익산시』 246쪽, 도서출판 역락. 선화공주 자료가 넷 검출되었으나 나머지 셋은 『삼국유사』 무왕조의 아류로 보이므로 생략함.

채록일 2011. 8. 25

선화공주 선화공주 우리 공주 선화공주 / 시집일랑 아니 가고 밤이면 또 밤마다
서동 방만 찾아가서 안고 굴며 논다네 / 서동이여 서동이여 어서 오소 어서 오소
염통일랑 하나인데 염통 반쪽 떼어다가 / 공주님께 바쳤다네

·이종수의 스승 박갑근 옹(2005년 작고)이 학생들에게 꼭 이 노래를 가르쳤다고 한다.

2. 경남 거창군 취우령 설화 및 축제[3)]

국경 지대라는 역사적 경험은 또 하나의 설화를 낳았으니 이 마을에서 전래되는 선화 공주 설화이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백제 서동 왕자와 신라 선화 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거니와 영승 마을에서 전래되는 설화는 두 갈래다. 하나는 서동 왕자가 선화 공주를 말에 태우고 영승 마을 뒷산인 취우령을 넘어 백제의 첫 동네인 이곳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부여로 갔다는 이야기이다. 다른 하나는 신라 왕궁에서 쫓겨난 선화 공주가 취우령을 넘다가 영승에서 백제 수비대에 붙잡혀 첩자로 몰려 죽었다는 슬픈 결말이다. 서동 왕자가 바로 이 지역을 점령했던 백제 무왕이었다. 원래 설화가 다 그러하듯이 영승의 선화 공주 설화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설화가 무왕이 이곳을 점령했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만은 부정하기 어렵다.

선화 공주 설화는 영승 마을의 문화 자산이 되었다. 취우령(驟雨嶺)이 '비가 몰려오는 고개'라는 뜻이듯이 취우령에 비구름이 몰려오면 곧 마을에 비가 왔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예부터 "취우재 비 묻었다. 설거지해라."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비를 선화 공주의 눈물이라고 믿는다. 또한 가뭄이 들 때 취우령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선화 공주 설화는 1986년에 처음으로 채록되었고, 2013년부터 매년 선화 공주의 넋을 위로하는 취우령제를 지내고 있다. 역사는 설화를 낳았고, 그것은 다시 문화가 되어 마을의 전통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3)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거창문화대전』, 2015년 9월~2017년 8월까지 사업. 2017년부터 누리집에서 제공.

3. 강원도 동해시 감추사[4)]

강원도 동해시 용정동에 있는 사찰.

신라 선화공주(善花公主)가 창건한 석실암(石室庵)에서 유래한 이 사찰은 현대에 중건되어 감추사(甘湫寺)라 불리고 있다. 현재는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다. 설화에 의하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병이 나자 현재의 감추사인 동주(東州) 감추(甘湫) 동굴에서 3년간 기도를 하였는데 그 후 병이 낫자 석실암을 지었다고 한다. 근대인 1902년에 절을 다시 짓고 신건암(新建庵) 또는 대은사(大恩寺)의 분암(分庵)이라 하였다고 전하나 이를 고증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최만희와 홍종범이 1963년에 편찬한 『진주지(眞珠誌)』에 의하면 "석실암은 군의 북쪽 용정리 감추 북쪽에 있다"고 하였으나 1959년 태풍 해일로 인하여 유실되었다. 1965년 감운법사(甘雲法師) 인학(仁學)이 삼성각(홑처마 맞배지붕)·용왕각·요사채 1동을 중건하여 감추사라고 하였다. 1979년에는 박복수(朴福壽)라는 이가 절 입구에 5층 석탑을 건립하였다. 2006년에는 관음전(전면 3칸, 측면 겹처마 팔작지붕)을, 2011년에는 삼성각을 지었다. 절 입구에 있는 약수가 유명한데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낸다고 한다. 특별한 문화재는 없다. 신라시대 선화공주의 기도처로 전해지고 있어서 고대 종교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4. '내 덕으로 산다'는 김좌수의 막내딸—영월읍 설화 96[5)]

그전에 김좌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네에, 또, 이름도 몰라요. 딸이 삼 형젠데 딸이 커다란 게 있어요.

"그래 넌 뉘 덕으로 사나?" 이러니까는,

"아버지 덕으로 살지 뉘 덕으로 살아요."

"오, 그렇지, 좋아." 그랬더니, 또 둘째 딸 불러가지고,

---

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120(용정동 502-2). 2016년 동국대학교 황인규 교수 집필.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한국구비문학대계 2-8, 강원도 영월군』 465~468쪽, 1986. 1983년 5월 16일, 제보자 고근록(남, 71살), 김선풍 조사.

"넌 누구 덕으로 사나?"

"아이, 아버지 덕으로 살지요."

"아, 그렇지." 세째 딸 불러가지고,

"넌, 누구 덕으로 사난?" 그니깐,

"아, 내 덕으로 살지 뉘 덕으로 살아요." 이래거던. 그래 내 쫓아 버렸어. 내 쫓으니 어떡해요. 그냥 쫓겨 가는 거지. 어디 가서 하루 종일 가니깐 뭐, 외딴 골짜구니 산골짜구니 올라가 집이 쬐끄만 게 있거던. 그리구 그 질(길)어구에 할머이 하나기 계신단 말야.

"아이, 할머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깐 내 좀 쉬어 가겠어요."

"아이, 어디 가는데 처녀가 쉬느냐?" 이래거든.

"아이, 난 뭐, 집두 절두 없이 그냥 나선 사람입니다." 그래, 그 이제 노인이 인제 밥을 가지고 인제 밥을 점심을 해가지고 갈려거든. 아,

"지가 가져 간다."고. 이래니깐,

"아, 어디 가는 처녀가 그 밥을 가져가면 되나." 그래,

"할머니 밥을 어디 가져 갈려오?"

"저 골짜구니 마구리 올라 가면 우리 아들이 숯을 굽는 데 점심을 가져 갈라 그랜다."

"아, 내가 갖다, 갖다 드리지요." 그래, 즘심을(점심을) 가져 갔어요. 가져 갔는데 아, 그전엔 즈(저의) 어머이가 밥을 가져 왔는데, 그 날은 처녀가 가져 왔거든. 그 우짼 일인지 알 수가 없지. 그래 밥을 가져와 먹고 앉아 보니깐 숯감을, 숯가마를 이렇게 박았는데, 숯가마를, 숯에 그 숯가마를 박았는데 한 가마에 낭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아마 시방으로 말하자면 한 이 삼십 포 나올 거래요. 숯을 구문(구으면) 낭글(나무를) 태워가지고 그래 인제 이맛돌, 이맛돌 박은 게 금돌이라. 금돌! 처녀가 보니까는. 내일부텀은 인제 그거 하지 말고 저 지빼가지고 가라 이러거든, 이맛돌 빼가지고. 아, 이 우리 밥줄을 빼 가주 가믄 우특하느냐고(어떻하냐고) 끔쩍(깜짝) 놀랜단 말야. 숯 굽는 거 이맛돌 빼 가주 가믄(가져 가면) 어떡하느냐?

"아, 이거 가져 가세요. 아뭇 소리 말고 가져 가세요." 그래 갖고 지고, 지고, 지게를 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 들어가서 저녁을 해 먹고 이래구선,

"내일은 장에 가서 파시요." 이랬단 말이야. 이맛돌을 가지고 가서 파시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맛돌을 지다만 돌을,

"그래, 값을 얼마하냐."

"그 주는 대로 팔고 오라." 이래거든. 그래 갖다 놓으니 뭐이 살라 그래? 만고에 살려는 놈이 없지. 저녁에 파장 무렵이 떡 되니까는 키가 훠이 큰 옷자락이 한 발은 되는 노인이 떡 지팡이를 짚고서,

"오늘 참 물건 좋은 게 나왔구나. 그래 이걸 얼마나 달라는가." 인제 그러니깐,

"아이, 전 금사를 모릅니다. 아이, 어르신네 그저 금사 값 나가는 대로 주시오." 이래니깐 아, 그거 갖다 팔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잖아요. 그니깐 그 가져가지 못할 테니깐 그냥 가라고 이제, 돈 조그만치 줬단 말이야. 그 뒤로 이제 돈을 보내는 거야. 그 돈 가지고 뭐,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큰 거 사게 됐단 말야. 부자같이 잘 살더래요. 이제 그래, 그래 이제 몇 해 흘러 가다 보니 인제 하루는 누가 동냥을 달랜단 말야, 동냥을. 누군가 하고 나오니 즈 아버지야, 친정 아버지야.

"아이구, 아버지 들어 오세요." 들어 와서 모셔 놓고 그래, 그 다음에 그 이튿날에 또 인제 즈 언니가 또 왔어.

"언니, 그래 아이, 언니 우짼 일이야."

"아, 니가 잘 산대니 내가 보러 왔다."

"아이, 고맙다." 또 그 사흘째는 또 즈 둘째 언니가 왔단 말야.

"언니 우짼 일이야."

"아이, 동생이 잘 산대니 그저 보러 왔다." 아이, 그러냐구, 그 참 고맙다구. 인제 그래서 다 데려다 메칠 묵어서 즈 아버지 뭐, 그따구는 뭐, 소용이 없으니까는 너도 얼마, 주고 너도 얼마 가지고 언니들도 다 주고도, 둘째 언니 얼마 주고 인제 큰 언니 얼마 주고 아버진 지가 모시고 아이 젙에다(곁에다) 아주 잘 집을 한번 잘 짓고 모시고 이래고, 그래 잘 살드래. 그니깐 제 복에 산다는 건 잘 살고 아버지 덕에 산다는 사람은 못 살아서 그저 은어 먹고 그저 제우 살드래요. 그래 남자나 여자나 배짱으로 사는 모냥예요. 그 때, 그 때 안 내쫓았으믄 그 여자도 못 산다고. 그 때 내 쫓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가지고 잘 산다고, 또 그 때 그 남자도 그 여자 아니면 또 평생 숯만 구워 먹고 살 텐데 그 이맛돌 그기 금이잖아요. 금덩이를 모르고 자꾸 숯만 구워 먹으니 우턱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사는 기 그렇드래요. - 끝 -

5. 설화 / "내 복에 산다" / O / 허영이 / 2012 /
양주시 남면 경신리 허영이 자택

II. 『삼국유사』 기이 지철로왕조 관련 설화

1. 시골에서 구한 지증왕 비(妃)－영월읍 설화 279[6]

신라조에 지증왕이라는 분이 기셨는데, 나이 한 이십 정도 됐을 때 신체가 하여간 한 팔척 정도 됐어. 돼가지고서는 왕비를 그러니까, 태자비를 구하는데 도저히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태자비를 어디 구할 데가 없어 가지고서는 근심을 하고, 전국이 이제, 임금님이 영을 내려서 태자비를 구해 오는 사람은 많은 상을 주고 높은 자리에도 앉힌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서로 태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방방곡곡에 돌아 댕기며 구했는데, 아무리 구해도 여자가 키가 팔척 이상 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여. 그래가주 태자비를 못 구하고 사방 서로가 모두 참 힘쓰지.

"그러니까, 많은 상금과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서로가 열심히 보러 댕겼대. 그래 한 사람이 어느 산골을 한 군데 가더니까 가다 지내가다 보니까 개울가에 천막을 하나 쳐 놓고 있드래. 숲이 있는데 천막을 하나 쳐 놓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우짼 이런 천막을 쳐 놨나 하고 젙에(옆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 이름이 말이야, 지금은 이름이 다르지만, 옛날에 여자들 입는 옷을 고쟁이라 그랬거든. 고쟁이라 그랬는데, 고쟁이를 빨아 넌기(넌 것이) 말이여, 작은 천막 하나 쳐 논 텍은 되드래. 사람이 얼마나 컸던지. 그래 이 사람이 가만 궁리 해 보니까, 좋은 수가 난 것 같단 말이야. '이런 고쟁이를 입을 적에는 아마 이 여자가 굉장히 큰 여자다. 만약에 이 여자가 처녀기만 하면 태자비는 말이야 아주 적절한 인물이다.' 생각하고, 그 근처 댕기면서(다니면서) 집집마다 댕기면서 조사를 했단 말이야. 한 집에 들어 가 보니까 저녁을 하는데 말이여. 이 여자, 처녀의 키가 울마나 큰지 그 벜(부엌)에서 인제 저녁 하는데 그 몸땡이(몸뚱이)를 꾸부정 해가주고(해서) 이렇게 저녁을 하고 있단 말이야. 하고 있는데, 천장에 닿을 정도로 키가 크단 말이야. 생각하니까,

---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한국구비문학대계 2-9－영월군』 112~114쪽.

“에이, 인제는 내가 상금도 많이 타고 말아야. 높은 지위도 얻고 하겠다.”하고, 그 날 저녁에 그 집에서 자기로 하고서는 저녁을 얻어먹고 앉아 가주, 그 집 주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이러이러 해가주 왔는데, 댁의 따님이, 태자비가 아주 적절하니 까, 내일 상부에 보고를 해서 하겠다.” 하니까 그 집 노인이 말하기를 끔쩍 놀랜단 말이야. 옛날엔 지금과 달라서 그 천민의 자손이 태자비가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이 이런 일을 한다면 말이지 나는 목이 달아난다. 이런 농부의 자식으로서 태자비가 될 수 있느냐? 아주 차라리 나를 죽여 줄라면 그냥 죽여 주지 말이여. 이런 얘기는 하시지 말라.”고. 그랜단 말이야. 아, 그런게 아니라고, 저녁에 앉아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억지로 인제 허락을 얻고는 그 이튿날 서울을 올라 갔지. 그래, 서울이 경주지, 신라니까. 게 올라 가지고서는, 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 저, 가보시라고 임금님께 갖다가 상소를 했단 말이야. 하니까, 임금님이 대번 보통 시시한 사람을 보내지 않고, 아주 그 당시에 영상으로 있는 제일 높은 이를 이제 보내고 가마까지 보내가지구서는 게 그 집에를 가니까, 그 집에서는 사실 그기 반신반의할 일이란 말이여. 그 농부의 자식이고 이런데 태자비가 된다는 건 이건 반신반의할 일이지, 믿지 못하는 얘기니까. 게 그 집에 처녀의 아버지는,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다”하고 말이여. 근심을 하고 있더니, 뭐, 죽는 날보다도, 당시의 영의정이 오더니 그 집 사랑에를 들어와가지고는 대번 그 집 처녀의 아버지를 아주 부원군이라고 이래면서 절을 막 하고, 그래고 거기서 당시의 상감의 명령이 이러이러 하시니까, 저 따님을 빨리 그 서울로 올려 보내셔야 하겠다니, 그래 당장에 고만 가마를 태켜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서는, 그 처녀가 태자비가 됐대요. 돼가지고 그 집 집안이 참 대대로 다 잘 살고 그래고 높은 벼슬도 하고 그래서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대. 그런 얘기가 있더래요. - 끝 -